

‘佛여우’ 보러 가자

20일까지 광주극장서 ‘불여우 열전’

영원한 뮤즈부터 팜므파탈 매혹까지
프랑스 여배우들 만나며 추억속으로

‘프랑스 대표 여배우를 만나다.’ 프랑스문화원과 아트플러스 시네마네트 워크가 주최하는 ‘불여우 열전’이 오는 20일 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배우는 프랑스와 튀니지, 루이 말 등 세계의 거장들이 사랑했던 잔느 모로부터 프랑스와 오종의 영화에 잇따라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루디빈 사니에르 등 신예까지 16명이다. 상영작은 모두 18편.

‘거장 감독들의 영원한 뮤즈’로 불리는 잔느 모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영화는 프랑스와 튀니지 감독 작품으로 영화감독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졸 앤 집’이다.

영화 개봉 당시 ‘악마는 브리짓트 바르도를 창조했다’라는 찬사를 받았던 로제 바딘 감독의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에서는 육감적인 여배우 브리짓트 바르도의 20대 시절 연기를 만날 수 있다. 우아한 이미지로 알려진 ‘세기의 미인’ 카트린느 드뇌브가 출연한 흥겨운 뮤지컬 ‘로슈포르의 숙녀들’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작품.

‘까미유 끌로델’의 헤로인 이자벨 아자니는 신비로운 눈과 고혹적인 모습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여배우다.

로망의 연인으로 분했던 ‘까미유 끌로델’에서는 사랑 때문에 불운했던 여성 예술가 까미유 끌로델의 모습을 생생한 연기로 보여주며 빅토르 위고의 둘째딸로 재능있는 작가였던 아델 위고의 이야기를 그린 ‘아델 H 이야기’에서는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줄리엣 비노쉬 역시 한국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여배우. 이번 영화제에서는

그녀를 스타덤에 올렸던 레오 카락스 감독의 ‘퐁네프의 연인’이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남자 주인공과 파리 퐁네프 다리 위에서 춤을 추던 장면은 영화팬들이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는 명장면중 하나다.

독특한 분위기의 엠마누엘 베아르의 대표작인 ‘프랑스 여인’과 ‘마리와 줄리앙 이야기’, 칸느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이자벨 위페르의 명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레이스 짜는 여인’, 파니 에르담의 ‘마리아 칼라스’와 ‘이웃집 여인’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비포 선 셋’의 사랑스러운 여배우 줄리 델피의 작품으로는 ‘뉴욕에서 온 남자, 파리에서 온 여자’를 만날 수 있으며 샬롯 갱스부르의 ‘레망’도 상영된다. 그밖에 매혹적인 외모로 샤벨 향수 모델과 본드걸로도 활약했던 카롤 부케의 ‘육망의 모호한 대상’ 등도 눈길을 끈다.

신진 여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도 있다. 프랑스와 오종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며 관객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루디빈 사니에르는 ‘우리의 릴리’로 관객들을 만나며 엠마누엘 드브의 ‘내 입술 위에’도 상영작 목록에 올라 있다.

그밖에 카트린느 드뇌브, 이자벨 위페르, 엠마누엘 베아르 등 프랑스 여배우들의 총출동한 프랑스와 오종 감독의 뮤지컬 영화 ‘8명의 연인들’은 배우들을 한 화면에서 만날 수 소중한 영화다.

시간표는 광주극장 홈페이지(<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참조.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1 잔느 모로
- 2 이자벨 위페르
- 3 줄리 델피
- 4 베이트리체 달
- 5 브리짓트 바르도
- 6 줄리엣 비노쉬
- 7 카트린느 드뇌브
- 8 이자벨 아자니



주목! 이영화

‘마다가스카 2’



아프리카의 모험

웃음·감동 만끽

지난 2005년 개봉, 흥행 대박을 터트렸던 ‘마다가스카’의 속편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이 돋보이는 가족 애니메이션이다.

미지의 섬 마다가스카에 불시착했던 사자 알렉스와 얼룩말 마티, 기린 멜만, 하마 글로리아는 뉴욕 동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펠리컨공대가 제작한 비행기에 오른다.

하지만 연료 부족으로 또 다시 야생의 땅 아프리카에 불시착하고, 그 곳에서 또 다른 모험을 벌이게 된다.

알렉스는 어릴적 헤어진 부모를 만나고, 하마 글로리아는 느끼한 하마 모토모토와 사랑에 빠진다. 또 네마리 악동 펠리컨은 여전히 유쾌한 웃음을 전해주며 소심한 기린 멜만을 오랫동안 숨겨온 사랑을 고백한다.

알렉스 역의 벤 스틸러, 알렉 볼드윈 등 명배우들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다. 아프리카의 푸른 하늘과 거대한 초원, 수많은 동물들의 털 한올 한올까지 세심히 묘사한 장면들이 눈길을 끈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대구 남문로 100 (052) 227-9940

총장점 금남로 100 (052) 227-9970

novita

신뢰할 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신용보증서 / 품질보증서 / 신제품보증서




비데프라자 | TEL 052-515-1144

이오니아 1석 2조 페스티벌!

합탈리 이온수기 위생용성 개선효과 써가기별 로봇청소기 증정행사!



이온수기 구매시 로봇청소기 1+1 증정행사를 실시합니다. 합탈리 이온수로 건강도 챙기고, 로봇청소기까지 무료로!

이제 바로 신청! 두 가지 주는 이온수기 이오니아 빅터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기간: 1월 10일 ~ 1월 25일 / 신청처: IONIA / 신청방법: 전화신청

IONIA 1544-1219

1월 10일 ~ 1월 25일